

에살하돈 조약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28장) 비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제언

장미자*

1. 서언

님루드(Nimrud)에서 발굴된 에살하돈 조약(이하 VTE)과 신명기 28장의 언약 저주 사이에 발견된 유사성은 전자가 후자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한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언약 저주와 VTE 저주 사이에 나타난 ‘유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중동 저주 문헌의 맥락에서 공정하게 두 문헌을 비교 연구해야 하는 것은 두 문헌 모두가 반영하는 문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고대 중동 저주 문헌을 BC 3000년 기 말부터 1000년 기 중엽까지 고찰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소수의 저주 외에는 공시적이고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저주가 문자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둘째, 저주 목록이 짧은지 길든지 간에 하나의 공통 구조를 반영하는데, 그 공통 구조는 문자적이 아니라 개념적이다. 셋째, 아주 짧은 저주 목록을 제외하고, 저주 목록들은 그러한 공통의 구조 안에서 각 상황에 부합하게 저주를 저작했다는 점이다. 짧은 저주 목록은 주로 건축 비문(Building inscriptions)에 나타나는데, 저주 개념은 거의 일치한

*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교수, 구약학

다. 긴 저주 목록도 짧은 저주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주 개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는 VTE에 국한하여 비교,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 두 문헌의 배경은 무려 BC 3000년 기부터 내려오는 고대 중동의 문헌적 유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헌적 유산을 고려하면서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와 VTE 저주를 비교,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맥적 접근 방법(contextual approach)은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와 VTE 저주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고대 중동 저주 문헌에서 연구하여 찾아내 두 저주 문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¹⁾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고대 중동 저주 문헌의 특징에 따라서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와 VTE 저주를 개념에 근거하여 비교, 연구하고 이 두 문헌에 나타난 저주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 비교하여 구조의 공통 요소와 차이, 각 문헌에 나타난 저주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잘 보존된 쿠두르 저주 목록과 함께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할 것이다. 지면상 신명기의 언약 저주와 VTE의 저주 쿠두루(Kudurru),²⁾ 저주 목록에서 각 저주 목록에만 나타나는 저주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³⁾

1) 참조, W. W. Hallo, "Compare and Contrast: The Contextual Approach to Biblical Literature," B. W. Jones, G. L. Mattingly, and W. Hallo, eds., *The Bible in the Light of Cuneiform Literature*, ANETS 8 (Lewiston; Queenston;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0), 3.

2) 쿠두루(Kudurru)는 '카사이트인'(Kassites)들이 왕이 하사한 토지를 기념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로 깎아 만든 기념비로 새로운 종류의 문서이다. 쿠두루의 높이는 약 1미터이고, 왕실 하사의 업무 처리에 증인으로 대두한 신들의 상징이 새겨져 있다. 쿠두루를 보존하기 위하여 새겨진 내용을 지우거나 훼손하거나, 쿠두루 자체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다양한 저주가 새겨진 중요한 기념비적 증거 자료이다. 참조, M. Roaf, *Cultural Atlas of Mesopotamia and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Oxford: Facts on File, 1990), 142.

3) 본 소고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M-J.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Curses," Unpublished Ph. D. Thesis (Liverpool, 1998), 406-411, 부록 5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충한 것이다.

2. 학적 개관(概觀)과 평가

와이즈만(D. J. Wiseman)이 에살하돈(VTE)를 번역하여 출판한 역본에서 VTE 419-430과 신명기 28:23과 유사한 점을 언급한 이후부터 이 두 문헌의 비교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와이즈만의 언급을 보르거(Borger)가 수용하여 신명기 28:23에 언급된 가뭄 이미지가 한앗시리아 문헌에서 따왔다고 주장했다.⁴⁾ 보르거의 견해를 받아들인 프랑케나(Frankena)는 신명기 28:20-57과 VTE 414-452 사이의 평행 저주는 같지 않지만, 신명기가 VTE와 비슷한 저주 본문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⁵⁾ 와인펠드(Weinfeld)는 저주 내용과 순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명기 28장이 VTE를 베꼈다고 주장했다.⁶⁾ 프랑케나와 와인펠트의 연구에 이어 최근에 스테이만스(Steymans)가 VTE 저주 마지막 부분인 § 56과 신명기 언약 저주 첫 부분인 28:20-44을 비교, 연구하여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표 1>.

4)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VTE § 63과 신명기 28:23의 유사성은 초생반달 지대에 나타나는 가뭄을 가리킨다. 또한 표현이 유사해서 두 문헌 모두 하나의 공통 전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동과 철의 은유적인 사용은 오직 레반트와 아나토리아의 문헌(in the literature of the Levant and Anatolia)에만 증명되었으며, 그외의 스페르-바빌로니아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둘째, 모든 관련 자료가 BC 2000년 기(the second millennium) 시대의 것이다. 이것은 VTE 저주는 BC 1000년 기(the first millennium) 시대로 전승된 웨스트-세미틱(West-Semitic) 자료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장미자, “신명기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제언,” 『성서 사랑방』 8 (1999), 45; K. Watanabe, *Die adê-Vereidigung anlässlich der Thronfolgerung Asarhaddons*, BaM Bh 3 (Berlin: Gebr. Mann Verlag, 1987), 33-34에서 서셈어 자료가 VTE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한다.

5) R. Frankena,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4 (1965), 146.

6)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121-122.

2.1. VTE § 56과 신명기 28:20-44 비교

<표 1> VTE § 56과 신명기 28:20-44 비교

VTE	§ 56	신명기 28:20-44
	472-475	20a
	476-479	20b, 21
	479-481	22
	§ 63	23
	§ 64	24
	§ 65	
	§ 41	25a
483-484	§ 41	26
	§ 39	27
485-486	§ 40	28, 29a
487		29b
488	§ 42	30-32
430		33a
489		33b
490		34f.
		(36f.)
490		38
491		39
491		40
		41
		(42)
493		43f.

이 비교에서 스테이만스는 성경 저자가 신명기 언약 저주를 저작하는 데 VTE § 56을 근거로 사용했다고 본다.⁷⁾ 그러나 그는 신명기 28:20-44가 VTE 저주의 문자적 번역이 아닌, 자유로운 번역이라고 주장한다.⁸⁾ 스테이만스의 그러한 주장은 그가 상응한다고 보는 두 문헌의 저주에 나타난 몇 개의 어휘, 그 어휘의 파생 어원의 동일성 외에는 두 문헌의 저주가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⁹⁾ 스테이만스의 연구 결과는

7) H. U.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ür Deuteronomium 28, 20-44,” G. Brauch, ed., *Bundesdokument und Gesetz* (Freiburg: Herder, 1995), 121.

8) Ibid., 128.

신명기 언약 저주를 VTE 저주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데 많은 난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면, 전자는 후자에 제한하여 연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필자가 위의 평행 본문을 분석한 결과는 오직 5가지 개념(concepts)만 일치한다. 그 다섯 가지 개념은 두 문헌에만 국한시킬 수 없는 범고대 중동의 문맥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2.2. 공통의 저주

첫째, ‘신의 진노’(VTE 472-475; 신 28:20)는 수메르 시대부터 내려오는 대부분의 저주 목록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저주이다.¹⁰⁾ 또한 ‘신의 진노’(the divine anger/curse)는 BC 2000년 기 후기 쿠두루 저주 목록 요약 부분에 언급된다(참조, 본문 3.2.1.6.).¹¹⁾

둘째, 과멸의 저주인데, 저주받은 자의 전멸(annihilation of the cursed, 476a; 신 28:20b-21)이다. 이런 저주의 개념은 수메르 문헌부터 신 앗시리아 문헌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난다.¹²⁾

셋째, 전멸의 결과인 제주(祭主)의 부재(no libation, 476b-477a)에 대한 저주이다. 고대 중동에서 죽은 조상을 위하여 술을 부어줄 제주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조상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가족의

9) Steymans의 신명기 28:20-44와 VTE § 56에 대한 자세한 비교 연구는 Ibid., 120-140을 참조하라.

10)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A. K. Grayson, *Assyrian Rulers of the Early First Millennium BC I (1114-859 BC)*, RIMA II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1), 102; L. W. King, ed., *Babylonian Boundary-Stones and Memorial-Tablet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2), 17; V. Scheil, “Fragment de Kudurru de l’époque de Markuk Apal Iddin,” *MDP* 6 (1905), 38,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263, n. 13; 268-269.

11)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260-261.

12) 참조, Ibid., 60-64.

멸절(the annihilation of family)로 제주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이방 관습인 제주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적이 없다. 신명기 28:20 하반절-21절에 언급된 ‘파멸’(destruction)은 지속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초래된 단명(短命), 추방(exile)으로 약속의 땅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시사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징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주받은 자의 파멸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xxviii 50-69). 더욱이, 신의 진노와 파멸의 연결은 수메르 시대부터 신 앓시리아 시대에 이르는 문헌에서 증명된다.¹³⁾ 그리고 VTE에 나타난 저주받은 자의 파멸과 제주 부재에 대한 순서는 함무라비 법전의 저주와 일치하고(xxvii 34-40), 표현조차 거의 동일하다.

넷째, 저주받은 자가 파멸될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당할 것에 대한 저주 개념이다(477b-479a; 신 28:20b, 21절). 이러한 저주는 고대 중동에서 중주가 불충한 봉신을 징벌할 때 일반적으로 실현되었다.¹⁴⁾

다섯째, VTE 483-484와 신명기 28:26b¹⁵⁾의 평행되는 주제는 야생 동물에게 그들의 시체가 밥이 되는 것이다. VTE 490a와 신명기 28:35¹⁶⁾에 언급된 평행 저주는 질병과 연관 있는데, 전자는 온갖 종류의 질병, 후자는 피부병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저주는 고대 중동의 건조하고 더운 기후 속에서,¹⁷⁾ 또한 전쟁 때 흔히 나타난다.¹⁸⁾

요약하자면, VTE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평행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점은 두 문헌이 공통된 전통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몇몇 저주는 일상이나 전쟁 때 공통적으로 행하는 일, 공통적 상황과 환경을 반영한

13) Ibid., 268-269.

14) Ibid., 102-103, 175.

15) 참조,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uer Deuteronomium 28, 20-44,” 124.

16) 참조, Ibid., 126.

17)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91.

18) Ibid., 175-176.

다. 그러나 저주는 VTE와 신명기 28장은 각각 다른 세계관을 나타낸다.

2.3. 상이한 저주

실제로 VTE § 56과 신명기 28장 사이에는 평행 저주가 없다. 스테이만스가 주장한 ‘공통 주제’는 사전적인 유사(類似, lexical analogy)에 근거한다. 몇 가지 예를 고찰하겠다.

2.3.1. VTE § 63과 신명기 28:23

VTE § 63과 신명기 28:23에 대한 스테이만스의 주장은 아주 빈약하다. 그는 아카디어 ‘šamûn’(하늘)은 단집을 묘사한다고 본다. 그래서 스테이만스는 이 모티브가 힐러스(Hillers)와 와타나베(Watanabe)가 주장하듯이 서셈어(west-semitic)에서 앓시리아어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¹⁹⁾ 사실 아카디어 ‘šamûm’는 셈어에서 공통적(common semitic)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VTE의 문맥에서 ‘šamûm’가 ‘하늘’ 외에 다른 어미를 보유한다는 강력한 이유가 없다.²⁰⁾

2.3.2. VTE 488-489(§ 42)와 신명기 28:30-32

VTE 488-489(§ 42)와 신명기 28:30-32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²¹⁾

19)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uer Deuteronomium 28, 20-44,” 137.

20) 발굴된 부조에 표현된 금이나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한 ‘단집’(canopies)이 있다(CAD Š, 348). 부조에 살마네셀 3세(Shalmanezar III, BC 858-824년)와 마르둑자킬슈미(Marduk-zakir-shumi, BC 854-819년)가 (아마도 천으로 만든) 단집 아래서 만나는 장면이 있다. 참조, J. Oates,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110; VTE § 63과 신명기 28:23에 대한 이해는 위의 각주 4를 참조하라.

21) 참조,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uer Deuteronomium 28,” 125-126, 131.

두 문헌에 언급된 저주 개념은 일치하지만, 각각의 저주가 다른 순서로 나타난다. 전자는 땅의 과멸로 귀결되는 홍수에 대한 저주로, 전쟁 개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후자는 전쟁과 연관된 저주이다.

VTE § 42가 신명기 28:30-33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²²⁾ 이 두 문헌에 언급된 저주는 고대 중동 세계에서 전쟁 시 보편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이다. 승리한 군사들이 패배한 백성이 소유한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더구나 전쟁 때 목숨을 잃으면, 새로 건축한 집에 살수 없는 것과 수고하여 가꾸어 놓은 포도원이 소출할 열매를 누리지 못할 것이 아닌가(참조, 신 28:30). 느부갓네살 1세 시대(Nebuchadnezzar I, BC 1125-1104년)의 쿠두루에 ‘다른 사람이 그가 건축한 집을 소유할지이다.’(bīt ippušu libel šanuumma)라는 저주가 있다.²³⁾ 또한 패배한 백성이 겪는 운명 중 하나는 여성이 강탈당하는 것이다. VTE § 42가 신명기 28:30-32이 고대 중동 세계의 공통된 전쟁 후유증을 반영하지만, 두 본문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적들이 아내를 빼앗고, 소유물을 약탈해 가는 내용이다.²⁴⁾ 하지만 신명기 28:30-31에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할 먹을거리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진된 모습에 대한 저주는 VTE § 42에는 없다.

2.3.3. VTE 491과 신명기 28:39-40

VTE 491은 저주받은 자에게 ‘당나귀 오줌’이 마실 것이 되고, ‘나프

22) Ibid., 134.

23) L. W. King, ed., *Babylonian Boundary-Stones and Memorial-Tablet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2), 6.

24) 티글랏빌레셀 1세(Tiglath-pileser I, BC 1114-1076년)에서 아슈르바리팔(Ashurbanipal, BC 668-627년)이 반역한 봉신국을 징계하기 위하여 군사 원정을 했다. 특히 아담나라리 2세(Adadnirari II, BC 911-891년) 연보를 보면, 반란을 일으킨 봉신국을 징벌한 후에, 전리품과 소유물과 가축을 앗시리아로 이송했다. Grayson, *Assyrian Rulers of the Early First Millennium BC I (1114-859 BC)*, 152.

타’(naphtha)가 ‘연고(軟膏)가 되길’ 바란다. 신명기 28:39은 ‘포도나무에 생긴 병으로 인하여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 수확할 열매가 없어서 포도주를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저주이다. 40절은 동일한 종류의 저주로서, 감람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감람나무 열매를 땅에 심는 수고가 무익하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로 피부 보호와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없게 된다. ‘마실 것(마시다)’과 ‘연고’(drink and ointment)의 어휘를 제외하고, VTE 491과 신명기 28:39-40 사이에 공통 요소는 없고, 저주의 개념도 완전히 다르다. 또한 VTE 491에 언급된 저주는 도망자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앗수르바니팔은 그의 맹공격을 벗어나서 그의 봉신 아라비아 왕 우에테(Uaite’)와 그의 군사들이 은신해 있는 산을 포위하여 식량 공급로와 산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바꾸었다.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낙타 피와 오줌을 마셨다(Pr. A. ix 25-40).²⁵⁾ 그리고 ‘나프타’(naphthah)는 연고로 피부에 바를 수 없는 유해물질로 ‘연고로 사용되라’는 저주는 도망자가 처한 아주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다. 피부연고는 고대 중동 세계에서 중요한 생활필수품이다. 기름, 연고를 바르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지 않는다.²⁶⁾ 그러나 신명기 28:39-40은 자연재해로 모든 노동이 무익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도, 감람유도 없을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VTE 491과 신명기 28:39-40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스테이만스의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고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를 간과한 것이다. 신 앗시리아 문헌에, ‘역청’이 그들의 연고가 될지어다.’(AM iv 14b)²⁷⁾란 저주는 끔찍한 부스럼 딱지를 예견한다. 전쟁 문맥에서

25) M. Streck, *Assurbanipal*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16), 74-75.

26) 참조, B. Meissner, *Babylonien und Assyrien I*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aetbuchhandlung, 1925), 243ff, 411.

27) S. Parpola and K. Watanabe, "Treaty of Aššur-nerari V with Mati'-ilu, King of Arpad," *Neo-Assyrian Treaties and Loyalty Oaths*, SAA II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88), 11.

신들이 저주를 선언 받는 자에게서 생필품을 제거하기를 염원하는 저주 목록에 몸에 바를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EB iv 16-17).²⁸⁾

2.3.4. VTE 493과 신명기 28:43-44

스테인만스는 VTE 493과 신명기 28:43이 압제자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는 후자가 전자를 해석한 형태라고 주장한다.²⁹⁾ 실제로 VTE 493과 신명기 28:43-44는 완전히 다른 저주이다. 전자는 저주받은 자들의 집을 악마들이 소유하여 온갖 종류의 불운이 일어나길 저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스라엘의 신분이 다른 민족들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 신이 떠날 것(the malediction of divine abandonment)이라는 저주와 악마의 점유에 대한 저주는 서로 다른 주제이다. ‘신의 떠남’이 자동적으로 악마의 지배로 귀착한다는 증거는 없다.³⁰⁾

2.3.5. 고대 중동 문헌의 번역기술에 대한 이해

고대 중동의 문헌이 어떤 셈어에서 다른 셈어로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주 초보 단계에 있다. 여기서 필자는 수메르 텍스트가 신 앓시리아 번역본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승리한 ‘니누르타’(Ninurta)가 ‘니푸르’(Nippur)로의 귀환에 대한 수메르 텍스트가 신 앓시리아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왔다(Ninurta to Nippur). “The Return of Ninurta to Nippur”에서 쿠퍼(Cooper)는 고대 바빌로니아 개정판이 수메르 텍스트를 보존했다고 한다. 쿠퍼의 본문 배열을 살펴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로 신 앓시리아 텍스트(NA)가 고대 바빌

28) Parpola and Watanabe, “Esarhaddon’s Treaty with Baal, King of Tyre,” *Ibid.*, 27. 다른 예는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90을 참조하라.

29)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uer Deuteronomy 28,’ 20-44, 136-137.

30)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263.

로니아 텍스트(OB)를 따른다. 예를 들면, 한 신 앓시리아 개정판은 수메르 텍스트를 보존하고, 다른 경우에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수메르 텍스트에서 의미를 바꾸지 않고 약간 다른 번역을 보여준 경우는 다음과 같다.

an-gim-dim-ma dumu ^d en-lil-lá	'created like An, O son of Enlil
an-<gim> dí-ma dumu ^d en-lil-lá (OB)	ditto
an-gim dí-ma [] (NA)	ditto
ki-ma ^d a-ni[m mar denlil]	ditto
^d ninurta ^d en-lil-gim dim-ma ^d nin-tur ₅ -e tu-da	'Ninurta, created like Enlil, born by Nintu
^d ninurta ^d en-lil-gim dim-ma ^d nin-tur ₅ -e tu-da (OB)	ditto
^d ninurta ^d en-lil-gim []x-e ù-tu-ud-[da] (NA)	ditto
^d MIN šá [k]i-ma ^d en-lil šá be-let ilāni ul-du-[šu] (NA)	ditto (first part) whom belet-ilani born

어떤 경우에 한 신 앓시리아 텍스트는 수메르 본문과는 다른 표현을 보존하지만, 동일한 원문에 근거한 다른 신 앓시리아 번역 텍스트는 원문의 표현과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고대 역자들이 번역 작업에서 원문을 매우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문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경우를 보면, 원문의 기본 의미를 바꾸지 않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를 히타이트 문헌에서 살펴보자. 히타이트의 슈필리우마 1세(Suppiluliuma)와 우가릿의 니크마두 2세(Niqmaddu II) 사이에 맺은 조약은 히타이트어와 우가릿어로 작성되었다. 디트리흐(Dietrich)와 로레츠(Loretz)가 두 텍스트를 평행으로 배열한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variation)를 제외하고 우가릿 텍스트는 글자 뜻 그대로 히타이트 텍스트를 따른다.³¹⁾ 한 경우에 접속사 ‘그리고’(w)가 우가릿 본문에 삽입되어 있다. 우가릿어로 표현이 약간 변경된 경우도 있다. ‘ana

31) M. Dietrich and O. Loretz, “Der Vertrag zwischen Suppiluliuma and Niqmandu,” *Die Welt des Orients* 3 (1964-1966), 208-210.

‘šamaš šarri rabī bēlika’가 우가리트어로 ‘l špš Arn’로 번역되었다. 우가리트어 번역은 ‘bēlika’가 생략되었다. 아카디어 텍스트에 왕이 조공의 수령인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우가리트어에는 여신 ‘šamaš of Arn’가 조공의 수령인으로 표현되어, 여신을 왕보다 위에 세웠다. 디트리흐와 로레츠는 의미가 변화된 것으로 보지 않고, 우가리트 텍스트에 왕이 능력있는 여신의 신실한 종으로 묘사된 것은 우가리트 텍스트가 아카디어 텍스트보다 더 외교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한다.³²⁾

두 텍스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ù (5)mg/j? (3) and ma-a (20)/hlnj’]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여 두 텍스트의 기본 의미가 바뀌지 않고, 두 문헌은 전체적으로 표현이 일치한다. 비록 간단하게 고대 번역 기술을 살펴보았지만, 고대 저술가들은 원문의 기본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 원문을 해석하는 번역 기술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³³⁾ 이러한 번역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가 VTE의 저주 목록을 해석하여 저작되었다는 스테이만스의 주장은 모순이며,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전자의 내용이 후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2개 국어를 사용한 고대 중동 저주 문헌이나 원본과 번역본에 때로는 표현 기법이나 문장의 길이가 다르기도 하지만, 내용상 서로 상응하고, 신명기의 언약 저주와 VTE의 저주와 같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VTE의 아람어 역본이 신명기 28장의 원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스테이만스의 추측³⁴⁾은 전혀 근거가 없다. 스테이만스는 신명기 28:20-44와 VTE § 56이 공통의 전통(common tradition)을 사용했

32) Ibid., 219.

33) Steymans, *Deuteronomium 28 und die adē zur Thronfolgeregelung Asarbaddons Freiburg* (Goettingen: Universitaetsverlag Freiburg; Vandenhoeck & Ruprecht, 1995), 152-194에서 제시한 고대 중동의 2개 국어로 병용된 문헌을 보면, 번역본이 원문보다 길거나 짧게 표현된 것은 원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된 번역본은 없다.

34)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ür Deuteronomium 28, 20-44,” 141.

을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³⁵⁾ 그 이유는 이 두 문헌에 언급된 저주 순서가 레위기 26장이나, 아람어 조약인 세피르 조약(Sefire-Vertraege), 다른 메소포타미아 저주 문헌에 신명기 28:20-44와 VTE § 56 사이에 있는 동일 주제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³⁶⁾ 스테이만스는 두 문헌의 비교를 사전적 유사에 기초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스테이만스는 그의 방법론으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사이에,³⁷⁾ 수메로-아카디언 저주와 VTE,³⁸⁾ 신명기 28장의 언약 저주 사이에³⁹⁾ 개념적 관계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만스는 신명기 언약 저주의 저자가 2개 언어를 사용하는 필사가와 달리 원본의 정확성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정치적 중요성에 관하여 앗시리아인의 훌륭한 문학적 업적을 차용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형했다고 추정한다.⁴⁰⁾ 이러한 견해는 고대 중동의 저주 저작 기법과 번역 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테이만스가 주장하는 신명기 28:20-44의 저작 연대를 BC 672년과 579년 사이로⁴¹⁾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2.4. 정리

신명기 언약 저주를 VTE 저주에만 국한하여 연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두 문헌 모두 고대 근동의 문헌적 공통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이

35) Ibid., 140.

36) Ibid.

37)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115-124.

38) Ibid., 60-103.

39) Ibid., 258-274.

40) Ibid.

41) Steymans, "Eine assyrische Vorlage für Deuteronomium 28, 20-244," 141.

다. 이 점에서 두 문헌의 저주 개념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 하지만 두 문헌은 각각 다른 세계관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내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 필사가의 번역 기술은 원문을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문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어휘는 생략하기도 했지만, 원문을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두 문헌에 나타난 저주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신명기 언약 저주가 VTE 저주를 문자적이지 아니라, 자유롭게 번역하여 저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신명기 언약 저주를 VTE 저주에만 국한시켜 연구하는 방법은 두 문헌의 저주 개념에 나타난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3. 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28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한 문맥 접근 방법

본 주제를 공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중동의 문화, 정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언약 저주의 내용이 고대 중동의 어떤 저주와 연관성이 있다면, 그 연관성을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 비추어 일치성과 상이성을 동일하게 고찰해야 한다.⁴²⁾

3.1. 고대 중동의 다양한 장르에 사용된 저주의 기능에 대한 이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주’는 고대 중동의 일상에 두루 널리 사용된 장르이다. 문헌상 이미 BC 3000년 기 말부터 ‘저주’는 여러 종류의

42) 참조, 본 소고의 각주 1.

비문, 제의적 용기, 수로, 건물(신전, 궁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겨 넣었고, 조약의 유지를 위해 조약의 마지막 조항에 조약을 파기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언된다.⁴³⁾ 이와 같이 저주의 예측적, 금지적, 보호적 역할은 저주의 형벌적 역할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고대 근동 저주의 역할과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 조항이 그 맥을 같이 한다.⁴⁴⁾ 그러므로 언약 저주(신 28장)가 예언적이고 언약 규정들(토라)을 지키지 않아 언약을 어기는 것을 금하고, 토라를 일상에서 실천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갖는다.⁴⁵⁾ 그러므로 고대 중동 저주는, 예를 들면 금지된 것을 어긴 것, 깨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깨뜨리거나 허물어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한 예견적 형벌로 이해되어야 한다.⁴⁶⁾

3.2. 고대 중동 저주 문헌의 구조 이해

수메르-아카디아어 저주와 성경의 언약 저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보유한 개개의 저주에 관하여 순서상 공통의 특징을 나타낸다.⁴⁷⁾ VTE(414-493)와 신명기 28장의 저주 순서를 비교하기 위하여

43)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48-59.

44) 참조, *Ibid.*, 59.

45)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예방적으로 이해하는 스테이만스의 견해(*Thronfolge-Ade Asarbaddons*, 28)는 금지적 저주 기능에 부합한다. 하지만 저주의 기능이 예언적임을, 저주의 예언적 기능은 형벌적 기능과 직결된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포로와 포로지에서의 불안한 삶에 대한 언약 저주는 예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대 중동 저주에 ‘포로로 끌려가는 저주’는 예견적이고, 그러한 상황은 전쟁 때 흔히 발생했다. 참조, 장미자, “언약 맥락 안에서의 신명기 11:26-32의 이해,” 31-32.

46) 저주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하여 내재된 힘을 지닌 마법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저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필자가 살펴본 고대 중동 저주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1-4.

47) 필자는 발표된 수메르 문헌에서 신 앗시리아 시대까지 모든 건축물 비문(building

저주 문헌이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마르둑나딘아헤(a Kudurru of Marduk-nādin-ahhē's time, BC 1099-1082년) 시대의 쿠두루(이제부터는 KuMna, 쿠므나)와 비교하기로 한다. 아래의 비교 구조를 보면, 두 문헌에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저주가 있고, 세 문헌 모두에 나타나는 저주가 있다. 굵은 글씨체는 세 문헌 사이에서 한 문헌에만 나오는 저주이다. 이러한 저주도 BC 2000년 기 저주 목록에 나오는 주제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한된 지면상 각 문헌에만 나오는 저주는 다루지 않고⁴⁸⁾ 오직 세 저주 문헌, 그리고 두 문헌에만 나타나는 저주를 순서에 따라 그 주제를 고찰하기로 하겠다<표 2>.

3.2.1. 세 문헌 사이의 공통 구조

위의 구조에서 세 저주 문헌에 나타나는 공통 주제를 살펴보겠다.

3.2.1.1. 파멸(Destruction)

이 저주는 KuMna에는 당사자의 가계, 가문(iv 6-10)를 포함하여 제주가 없는 것(iv 11)으로 귀결한다. VTE에 이 저주는 저주받은 당사자만 연관 있다[‘그들에게 장수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415b-416)]. KuMna에 나오는 공동체적 파멸의 개념이 신명기 28:20에도 나온다.

inscriptions)과 쿠두르 저주 목록, 무덤 비문을 연구한 결과 고대 중동의 저주 문헌은 공통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쿠두르 저주 목록이 원래 짧은 것도 있고, 다수의 저주 목록은 훼손되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KuMna를 비교 연구에 사용하였다.

48) 필자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세 문헌의 각 저주 목록에만 나오는 저주의 개념도 동시대의 저주 목록이나 이전 시대의 저주 목록에 나온다. 이는 각 문헌에만 나타난 저주도 고대 중동의 문헌적 공통 유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 고대 중동 저주 목록과 신명기 28장

주제	KuMna	VTE	28장
저주받는 상태			16-19
불길한 운명		414-415a	
신의 진노/저주	iv 1-5		20
파멸	iv 1-5	415b-416	20
신의 대적		417-418a	
중재가 없음		418b	
질병	iv 12-20	418A-421	21-22
장지가 없음	iv 21		
신의 진노	iv 22		
질병	iv 23		
공의가 없음	iv 24-26	422-423a	
시력을 잃음		423b-424	
가족의 몰락	iv 28b		
가뭄			23-24
전쟁 1	iv 29	425-430	25-26
특이한 저주들		431-432	
질병		433-434	27
가족의 전멸		435-439	
가뭄	iv 30-v 3	440-445a	
인육을 먹음	v 1-3	445b-451a	
주검: 동물들의 먹이		451b-451a	
제주를 부을 사람이 없음		452	
가족의 멸절	v 4-10		
경계의 파괴	v 11-18		
눈 어둠과 결과			28-29
전쟁 2	v 19-24	453-460	30-34
명성의 파멸	v 25-28		
질병	v 29-vi 2	461-463	35
단명	vi 3-6		
전쟁		464-465	
사람 잡아먹는 사자		467-468	
질병	vi 7-13	469-471	
자연 재해	vi 14-19		
신의 소격(疏隔)	vi 20-28		36-37
주제의 반복			38-57
요약	vi 29-32	472-493	58-69

3.2.1.2. 질병(Disease)

KuMna에 ‘신’(Sin)에게 저주 받은 자를 ‘그의 엄중한 형벌, 심한 형(刑)’ 즉,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결과(iv 18-20)를 가져오는 악성 피부병(leprosy)으로 괴롭히길 기원하는 저주이다(iv 12-17). VTE에는 질병에 대한 저주가 두 개의 세트(set)로 나타난다. 첫 세트는 ‘아누’(Anu)에게 기원한 저주는 보편적인 의미의 질병과 관련된다(418A-C). 두 번째 세트(419-420a)는 ‘신’(Sin)에게 기원한 저주로 KuMna 저주와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leprosy)으로 인한 결과로 저주받은 자가 신전과 왕궁에 출입하지 못하고 성읍에서 축출당하는 것이다(420b-421). 신명기 28:21-22의 저주는 자연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⁴⁹⁾

3.2.1.3. 전쟁 1

KuMna는 ‘사마쉬’(Šamaš)가 적으로 하여금 저주 받은 자를 압도하게 하길 요청한다. VTE는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425-427). ‘니를타’(Ninurta)가 저주받은 자들을 화살로 쳐서 넘어뜨리길, 싸움터가 피로 채우길, 시체를 수리와 독수리에게 먹이감으로 주길 기원한다. 그 다음에 적에게 성폭행과 약탈을 당하는 저주가 나온다(428-430).⁵⁰⁾

신명기 28:25-26에 여호와께서 적들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황폐하게 하시고(25절), 시체를 새와 야생짐승의 먹이로 주실 것이다(26절). 후자의 저주는 VTE 426b-427과 일치한다. 이 저주가 보여 주는 상황은 전쟁의 패배에 흔히 수반되는 광경이다.⁵¹⁾

49)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116-117.

50) 참조, *Ibid.*, 72.

51) 참조, *Ibid.*, 91.

3.2.1.4. 전쟁 2

전쟁에 대한 다른 저주는 KuMna(v 19-24)에 활의 부러짐과 활시위의 끊어짐이다.⁵²⁾ 이 저주는 팔을 묶는, 적에게 항복하는 저주와 함께 VTE 453-454에 나오고, 대량학살과 관련 있는 저주가 이어진다(455-458). 이 두 본문에 신들이 전쟁의 패배를 불러온 작인(作因)이다. 더욱이 VTE 459-460의 ‘이쉬타’(Ištar)에게 기원한 ‘공휼 없음의 저주’(the curse of no-mercy)가 전쟁 저주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쉬타’가 전쟁의 여신이고, 정복자들로부터 공휼을 얻는 것은 패배를 당한 군대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⁵³⁾

신명기 28:30-34는 고대 중동에서 흔히 있는 사건, 현상에 근거한 구체적인 저주를 보여준다.⁵⁴⁾ 30-34절의 개념은 느부갓네살 1세 시대의 문헌에 나오는 저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⁵⁵⁾

3.2.1.5. 질병

‘마르둑’(Marduk)이 KuMna(v 29-vi 1-2)에 저주받은 자에게 수종(水腫)(dropsy)을 내려주길 요청하고, ‘굴라’(Gula)가 VTE(461-465)에는 보편적으로 질병과 불치 피부병을 요청한다. 신명기 28:35는 불치 피부병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이러한 질병을 유다 사람들이 앓은 것은 여호와께서 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한다(사 1:5-6).

3.2.1.6. 저주 목록 요약

이름 없이 언급된 모든 신들이 KuMna(vi 29-32)에서 저주받은 자들

52) 참조, Ibid., 67-68.

53) 참조, Ibid., 71.

54) 참조, Ibid., 121-122.

55) 참조, Ibid., 72.

을 저주하길 언급한다. 저주 목록 결론 부분에 모든 신들에 기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쿠두르 뿐만 아니라, 법전에도 나온다(예, 함무라비 법전, xxviii 84-91). 이러한 요약으로 저주 목록이 마무리된다. 또한 다수의 쿠두르에 저주 목록의 결론 부분이 확장되어 나타난다. ‘멜리쉬팍’(Meli-Šipak, BC 1186-1172년)시대의 쿠두르에 보면, 결론 부분의 저주 순서는 다음과 같다.⁵⁶⁾ (1) 신의 저주(divine curse), (2) 가문의 멸절(annihilation of family line), (3) 기근과 불운(famine & evil fate), ‘마르둑 사팍 제리’(Marduk-šāpik-zēri, BC 1081-1069년) 시대에 속한 쿠두르는 ‘신의 저주’(divine curse)와 ‘불행’(misery)이 연합하여 나오고, 두 번째 저주는 다양한 질병과 인생의 온갖 종류의 불행을 포함한다. 동일한 개념을 보유한 결론 부분의 저주들이 확장되어 VTE에 나온다. VTE 필사가들은 472-493을 한 단위로 간주한다는 표시를 471-472사이에 줄을 그어 나타냈다.

VTE 저주 목록 결론 부분은 비교적 길다. 신들은 이름 없이 ‘천지의 모든 위대한 신들’로 묘사된다. 저주의 주제는 전술한 저주를 요약한다. (1) 신들의 진노, 저주와 저주받은 자의 파멸(472-475), (2) 저주받은 자의 파멸(476a), (3) 제주가 없음(no libations) (476b-481a), (4) 전쟁-기근과 역병을 수반한 쉼 곳이 없음(477b-481a), (5) 장지가 없음(482b-484), (6) 비참함의 상술(485-487), (7) 홍수(488-489a), (8) 구역질나는 생필품(489b-492), (9) 악마의 지배, 사로잡힘(493).

신명기 28:58-68에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 두 번째 조건절인 58절은 첫 번째 조건절(15절)로 시작한 언약 저주(15-57절)에 대한 요약이다. 전술한 저주를 두 단락으로, 즉 전염병과 질병(21-22, 27, 35절)은 58-62절에, 포로와 포로지에서 절망적인 삶(36-37절)은 63-68절에 요약된다.⁵⁷⁾ 이렇게 요약한 저주는 약속의 땅과 포로지에서 겪는 모든 저주를

56) King, *Babylonian Boundary-Stones and Memorial-Tablets*, iv 5-14.

57) 신명기 28장의 구조 분석에서 58-68절을 15-57절의 요약으로 본 것은 필자의

포함한다.

요약하자면, 저주 목록을 요약한 단락은 고대 중동의 저주 문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저주 개념은 다르다.

3.3. KuMna와 VTE에 나타난 저주의 공통 순서

3.3.1. 공의가 없음

KuMna(iv 24-28a)에 ‘사마쉬’(Šamaš)가 법적 소송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기원하고, VTE 422-423a에도 나온다.

3.3.2. 기근과 인육을 먹음

본 저주의 연결은 KuMna iv 30-v 3에, VTE 440-451a에 나온다.

3.4. KuMna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의 공통 순서

3.4.1. 신의 진노, 저주

본 저주는 KuMna iv 1-5, 신명기 28:20에 나온다. 전자의 경우, 신들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 BC 2000년 기 중엽과 후기 고대 중동의 저주 목록들을 분석하여 동시대의 저주 문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저주 목록은 공통적인 구조를 개작하여 각 상황에 맞게 저주를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 비추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분석한 결과, 레위기 26:14-45과 신명기 28:1-37은 공통 구조를 반영하고, 신명기 28:38-57은 동일한 주제의 저주를 반복하고, 58-68 절은 요약한다는 것이다. 참조, 장미자, “언약 맥락 안에서의 신명기 11:26-32의 이해,” 『교회와 문화』 22 (2009), 27, 각주 38.

이-‘아누’(Anu), ‘엔릴’(Enlil), ‘이아’(Ea), ‘닌마’(Ninmah)-쿠두르를 훼손하는 자에게 진노하기를 기원하고, 후자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시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하실 것이다. 저주 받은 자들이 멸망할 때까지 신의 진노, 저주가 유지되는 사상은 신명기 28:20에만 나오는 유일무이한 저주가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질병의 저주가 저주 받은 왕이 멸망할 때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원이 나온다(xxviii 50-69). 또한 신의 진노, 저주는 BC 2000년 기 저주 목록의 첫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온다.⁵⁸⁾

3.4.2. 신의 소격(疏隔)

‘신의 소격’에 대한 개념은 KuMna(vi 20-28)와 신명기 28:36-37에 나타난 저주와 유사하다. 전자의 경우, ‘이쉬타’(Ištar)가 저주 받은 자를 보호하는 남신과 여신을 그에게서 멀어지게하기를 기원한다. 이 저주에 따라 나오는 두 가지 저주(imprecations)로, 그 중 하나는 ‘이쉬타’가 악신을 그의 곁에 붙여 있게 하고(vi 24-26), 다른 하나는 그가 계획하고 행하는 무엇이든 좌절되기를(vi 27-28) 기원하는 내용이다. 후자의 경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몰아내어,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시길 기원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멀어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3.5. VTE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의 공통 순서

VTE 433-434의 ‘마르둑 저주’(the Marduk-curse)는 수종(水腫)과 연관이 있다. 질병의 개념은 신명기 28:27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58)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263, no. 13.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 받지 못할 것이다.”와 비교된다.

3.6. 정리

저주는 고대 중동의 일상에서 중요한 용기나, 건물,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된 장르이다. 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가 보여주는 공통 구조는 고대 중동의 저주 문헌에 대한 유산을 공유하는 것에 기인한다. 기후와 자연환경, 삶의 양상이 유사한 이스라엘, 앗시리아, 주변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가 저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언약 저주와 VTE 저주가 개념상 일치한다. 구조상 저주순서가 같지 않더라도 저주의 개념은 고대 중동의 기후, 사람들 관심사, 삶의 양상 등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 점은 두 문헌에 나타난 저주순서가 다르게 나타는 것은 각 문헌의 필사가가 저주 문헌의 공통유산을 그대로 전수한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저주를 저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 저주 문헌(신명기 28장, VTE, KuMna)의 비교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공통 유산을 차용하여 각 상황에 부합하게 저주를 저작하는 기법은 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필사가의 보편적 저작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4. 고대 중동의 문화적 교류⁵⁹⁾

이스라엘 땅은 지정학적 위치상 앗시리아와 접촉이 있기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59) 이 부분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Part VI 1장 4를 정리한 것이다. 참조, 장미자, “신명기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제언,” 「성서 사랑방」 8 (1999), 52-53.

문화 유물들이 가나안이 고대 중동의 여러 나라와 무역 관계가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약탈한 품목 중에 포함된 외투의 출처는 시날인데(수 7:21), 이것은 BC 2000년 기 때 상부 메소포타미아(Upper Mesopotamia)와 아나톨리아(Anatolia)에 통용하고 있었던 바빌론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⁶⁰⁾ 모직 천과 의복은 일찍부터 바빌로니아 무역의 주요 산물 중 하나였다. BC 2000년 직후, 직물 산업은 아마도 바빌론에서 가장 컸으며, 상업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다. BC 19세기에는 앗시리아 무역 상인들은 직물과 주석을 대대적으로 아나톨리아(Anatolia)와 무역했다.⁶¹⁾ 이렇게 고대 근동 국가들이 상호간에 문화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한 것은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태 환경과 문화가 유사하여 공통된 점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다른 고대 국가와의 관계를 BC 8-7세기로 좁혀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⁶²⁾

5. 앗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교류

BC 1000년 기에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봉신국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 왕국이 앗시리아의 봉신국으로 종주국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결과로 BC 722년에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다. 유다 왕 아하스가 자진하여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순복하게 된 계기가 유다 왕국이 앗시리아의 봉신국으로 전락하게 했다. 그렇다면 앗시리아는 어느 정도까지 유다 왕국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앗시리아가 유다 왕국에 종교 정책을 폈다고 주장한다.⁶³⁾ 예를 들면,

60) A. Millard, "Back to the Iron Bed," *VTS* 61 (1995), 197.

61) *Ibid.*, 197-198.

62) 신명기가 구조상 BC 2000년 기 조약 형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8장을 VTE와 동시대론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참조, 장미자, "언약 맥락 안에서의 신명기 11:26-32의 이해," 「교회와 문화」 22 (2009), 9-39.

학자들은 요시아 왕이 파괴한 이방 신상들을(왕하 23:4 이하) 앗시리아 신들로 이해한다. 하지만 태양신과 달신 숭배는 고대 중동에 널리 퍼진 제의였고,⁶⁴⁾ 또한 천체 숭배는 BC 2000년 기에 셈족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제의였다.⁶⁵⁾ 무엇보다도, 디글랏빌레셀 1세(Tiglath-pileser I)에서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까지 앗시리아 왕들의 연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앗스르 왕들은 봉신 왕들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는 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봉신 왕들에게 앗시리아 신들을 섬기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⁶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앗시리아와 유다에게 종교적 정책을

63) 예를 들어, H. H. Rowley, "Hezekiah's Reform," *BJRL* (1962), 425; J. Bright, *History*, 282을 보라.

64) 참조, McKay,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London: SCM Press, 1973), 32ff.

65) 참조,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New York: Doubleday, 1988), 266.

66) 참조, M. Cogan, *Imperialism. and Religion* (Missoula: Scholars Press, 1974). 그러나 스피커만[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W. Schrage and R. Smend, ed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은 앗시리아 왕들이 그들의 봉신 왕들에게 앗시리아 종교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한 디글랏빌레셀 3세의 '가자' 원정에 대한 본문을 잘못 이해했다. 이 군사 원정에 대하여 디글랏빌레셀 3세는 '나의 주인인 신들의 모습과 왕인 나의 모습이 담긴 상(像)을 금으로 만들었다'[H. Tadmor, *The Inscriptions of Tiglath-pileser III King of Assyria* (Jerusalem: 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1994), 177]. '나는 그것을 가자의 왕궁에 세웠고, 그들 나라의 신들에 포함시켰다,' *Ibid.*, 141. 이러한 언급은 디글랏빌레셀 3세의 연보에 나타난 유일한 사건이다. 또한 '가자'는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앗시리아를 위하여 상업중심지(*bit kari*)로 만든 유일한 봉신 도시였다(*Ibid.*, 189). 앗시리아 제국과 애굽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고 '가자'에 대한 디글랏빌레셀 3세의 조치는 애굽과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조, M. Elat, "The Economic Relations," *JAOs* 98 (1978), 26. 코간(Cogan)은 디글랏빌레셀 3세가 '가자'를 그렇게 조직한 것은 앗시리아 사람들이 '가자'에 영속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본다. "A Reexamination of Imperialism," *JBL* 112:3 (1993), 407. 아마도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앗시리아 사람들을 '가자'에 주재시켰기 때문에, 그가 '가자'에 앗시리아 신들의 모습이 새겨진 상(像)을 그곳에 세운 것을 보인다. 때로는 앗시리아 왕들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와 봉신국에 앗시리아 신들의 상징이 담긴 상(像)을 세웠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 3세가 '가자'에 세운 상(像)은 앗시리아 종교를 '가자'에 강요한 것이, '가자'의 종교가 중단된 것을 시사하지 않는다. 게다가 스피커만(*Juda unter Assur*, 331)이 사르곤 연보에서

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6. 결어

고대 중동의 저주 문헌은 BC 3000년 기에서 1000년 기까지 공통 유산을 보유한다. 그 저주 문헌은 작가들이 공통적 유산을 그들의 상황에 부합하게 저작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고대 중동의 민족들이 저주 문헌의 전통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삶의 정황이 유사했고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 교류가 쉽게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VTE 저주와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 사이에 나타난 유사성은 이 두 문헌 모두 고대 중동의 문헌적 공통 유산을 개작하여 개별적 상황에 맞게 저주를 저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저작 기법은 그 두 문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중동의 필사가들이 저주 목록을 저작할 때 사용한 저작 기법이다. KuMna, VTE, 신명기 28장의 비교 연구에서 본 것 같이 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는 구조와 내용상 고대 중동의 공통적 유산을 공유하여 BC 2000년 기의 저주 문헌의 구조와 내용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헌 유산에 대한 공유는 고대 중동의 자유로운 문화 교류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고대 중동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와 준 사막성 기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생태기도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물품과 관심에 대한 공통 저주 내용은 고대 중동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한다.

인용한 ‘감부루’(Gambulu)에 대한 사르곤의 정책은 앗시리아 봉신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앗시리아 지방을 위한 것이었다(스피커만은 ‘감부루’ 사람들을 ‘힌다루’(Hindaru) 사람들로 잘못 이해해 해석했다). 실제로 ‘메로다흐 발라단’(Merodach-baladan)의 반란에 가담한 ‘감부루’ 부족은 사르곤의 군사 원정에 패한 후 앗시리아에 병합되었다. 참조,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213-214, no. 10-11.

하지만 VTE의 저작 연대는 에살하돈(BC 680-669년) 시대로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28장의 언약 저주를 VTE와 동일한 시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신명기 언약 저주가 BC 2000년 기의 구조와 내용을 반영하고, VTE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신명기 언약 저주의 근간을 VTE로 보는 이유는 문자적 유사성 때문이다. 그러나 두 문헌의 저주 개념은 너무도 차이가 나고, 몇 가지 유사성을 보유한 저주조차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신명기 언약 저주를 BC 2000년 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1000년 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BC 2000년 기 조약과 1000년 기의 조약 연구에 비추어 신명기 형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VTE, KuMna, 신명기, 언약 저주, 저주 문헌, 저주 목록, 문맥적 접근 방법

<Key Words>

VTE, KuMna, Deuteronomy, Covenant-Curses, Literature of curses, Lists of curses, Contextual approach

참고문헌

- 장미자, “신명기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제언,” 「성서 사랑방」 8 (1999), 38-57.
- 장미자, “언약 맥락 안에서의 신명기 11:26-32의 이해,” 「교회와 문화」 22 (2009), 27, 각주 38.
- Cogan, M. and Tadmor, H., *II Kings*, AB 11, New York: Doubleday, 1988.
- Cogan, M., “Judah under Assyrien Hegemony: A Reexamination of Imperialism and Religion,” *JBL* 112:3 (1993), 403-414.
- Cogan, M., *Imperialism. and Religion*, Missoula: Scholars Press, 1974.
- Cooper, J. S., *The Return of Ninurta to Nippur*,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8.
- Dietrich, M. and Loretz, O., “Der Vertrag zwischen Suppiluliuma and Niqmandu,” *Die Welt des Orients* 3 (1964-1966), 206-245.
- Finet, A, *Le Code de Hammurapi*, Paris: Les Éditions Du Cerf, 973.
- Frankena, R.,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4 (1965), 122-154.
- Grayson, A. K., *Assyrian Rulers of the Early First Millennium BC I (1114-859 BC)*, RIMA II,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1.
- Hallo, W. W., “Compare and Contrast: The Contextual Approach to Biblical Literature,” B. W. Jones, G. L. Mattingly, and W. Hallo, eds., *The Bible in the Light of Cuneiform Literature*, ANETS 8, Lewiston; Queenston;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0.
- Jang, M-J., *Biblical Covenant-Curse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Curses*, Unpublished Ph. D. Thesis, Liverpool, 1998.
- King, L. W., ed., *Babylonian Boundary-Stones and Memorial-Tablet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2.
- McKay, J.,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London: SCM Press, 1973.
- Meissner, B., *Babylonien und Assyrien I*,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aetbuchhandlung, 1925.

- Millard, A., "Back to the Iron Bed: Og's or Procrustes'?" *VTS* 61 (1995), 197.
- Oates, J.,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 Parpola, S. and Watanabe, K., *Neo-Assyrian Treaties and Loyalty Oaths*, SAA II,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88.
- Roaf, M., *Cultural Atlas of Mesopotamia and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Oxford: Facts on File, 1990.
- Rowley, H. H., "Hezekiah's Reform and Rebellion," *BJRL* 44 (1961-1962), 395-431.
- Scheil, V., "Fragment de Kudurru de l'époque de Markuk Apal Iddin," *MDP* 6 (1905), 39-41.
- Spieckermann, H.,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W. Schrage and R. Smend, eds., *FRLANT* 129,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Steible, H., *Die neusumerischen Bau- und Weibinschriften, Freiburger Altorientalische Studien*,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1991.
- Steymans, H. U., "Eine assyrische Vorlage fuer Deuteronomium 28, 20-44," G. Braulik, ed., *Bundesdokument und Gesetz*, HBS 4, Freiburg; Basel; Wien; Barcelona; Rom; New York: Herder, 1995.
- Steymans, H. U., *Deuteronomium 28 und die adê zur Thronfolgeregelung Asarbaddons*, Freiburg, Goettingen: Universitaetsverlag Freiburg; Vandenhoeck & Ruprecht, 1995.
- Streck, M., ed., *Assurbanipal und die letzte assyrischen Koenige bis zum Untergang Niniveh's II*,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16.
- Tadmor, H., *The Inscriptions of Tiglath-pileser III King of Assyria*, Jerusalem: 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es, 1994.
- Watanabe, K., *Die adê-Vereidigung anlässlich der Thronfolgerung Asarbaddons*, BaM Bh, 3, Berlin: Gebr. Mann Verlag, 1987.
-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초록>

에살하돈 조약(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28장) 비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제언

장미자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교수, 구약학)

BC 3000년 기에서 1000년 기까지 내려온 고대 중동의 저주 목록은 공통 구조와 개념을 반영한다. 저주 목록의 이러한 특성은 고대 중동의 각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문화적 교류가 자유로웠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정황, 기후와 생태계도 거의 동일하고 저주의 내용도 고대 중동 사람들의 국가적-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주 개념이 상응한다.

VTE 저주와 신명기 28장 언약 저주 사이에 나타난 유사성에 의해 전자가 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는 구약학계에 널리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헌이 보여주는 구조와 주제가 유사하다고 해서 상호간에 문헌적 의존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두 문헌 모두 BC 2000년 기 저주 문헌의 구조와 주제를 반영하고, 고대 중동의 필사가들의 저작 기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VTE 저주와 신명기 언약 저주에 나타난 저주의 개념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저자가 전자를 번역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고대 중동의 필사가들의 원문의 의미를 왜곡해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VTE 저작 연대가 분명하다고 해서 신명기 28장을 동일한 연대로 보는 견해는 고대 중동의 필사가들의 저작기법에 비추어 볼 때 지지될 수

없다. BC 2000년 기와 1000년 기의 조약에 대한 연구는 신명기 28장 저주 연대 이해에 중요한 단서(端緒)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A New Perspective on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VTE) and Deuteronomy Chapter 28

Prof. Mi-Ja Jang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The lists of ancient Middle East curses from the third coming down to the first millennium B. C. share the common structure and concepts. This characteristic of the lists of curses show the cultural distinction was not sharp distinguished from one to another countries. The circumstances of life, climate and ecology was almost same, and also the contents of curses reflect the peoples' interests on the individual and national concerns, thus the concepts of curses are corresponding.

The view on the similar curses between the curse of VTE and covenant curses of Dt 28 indicate that the former influenced on the latter is widely accepted in the Old Testament scholarly world. But the similar structure and concepts existed in the two literature do not support an literary interdependence from one to another. These literature both reveal the structure and the concepts of curses from the second millennium B. C. and the same method of working on curses used the ancient middle East scribes. Except for a few concepts of curses between VTE

and Dt 28, others are completely different. A view that the writer of the latter translated the former is not convincing at all, since the ancient scribes did not translate, violating the meaning of the original. An attempt to date Dt 28 according to that of VTE is not sustained in the light of the way of writing used ancient scribes. A study of the treaties from the second down to the first millennium B. C. will provide a key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the date of the writing of Dt 28.